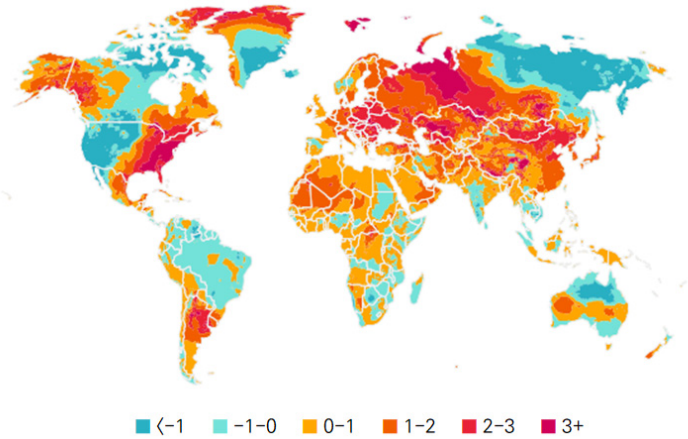
Ⅰ 서론

1. 연구배경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폭염과 한파와 같은 이상기온과 산불,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소식은 각종 뉴스 매체를 통하여 너무도 빈번하게 전해져서 이제는 익숙해진 지 오래다. 최근 발간된 AON의 2023년 1분기 자연재해 보고서[1]는 기록적인 이상고온 현상과 이로 인한 가뭄과 산불 등 재앙적 상황이 남미에서 발생하였고, 북미, 유럽, 아시아 등에서도 평균 기온을 훨씬 상회하는 이상고온이 관측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Ⅰ-1〉 글로벌 이상기온 현상



자료: AON(2023)

지난 3월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라 함)에서 발간한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보고서[2]는 이 익숙해진

1) AON(2023)

기상이변과 자연재난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이며 이는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Unequivocally) 인류 활동의 결과물이라는 차고 넘치는 과학적 증거를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에게 제시하였다. IPCC 보고서는 또한 파리협정의 지구 온난화 목표인 1.5°C를 맞추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2019년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5%까지 줄여야 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함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목표를 놓치게 되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극단적 기후 현상이 보다 빈번해지고 인류와 자연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1°C나 상승한 상태이며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다행하게도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막거나 줄이는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을 위한 가능하고 효과적인 해법들은 많이 나와 있다. 앞으로 10여 년 동안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인류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 인류뿐 아니라 전 지구 생태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종말적 미래를 피하기 위해서 인류는 지금 바로 탄소감축을 위한 기후행동을 전방위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원조달(Finance)이 필요하고 이들 재원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효과적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제도적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공시는 시장규율을 통하여 지속가능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금융인프라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과 이를 위한 통일된 지속가능 공시제도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재원조달 필요성

세계경제포럼(WEF)은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이 50조 달러(6.6경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3] 이 정도 규모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 동안 기후금융 규모가 100~15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위하여 매년 적어도 3~5조 달러 규모로 현재보다 8배의 투자가 필요하다.[4] 지속가능 투자는 기존 경제활동의 저탄소 전환과 수소, 바이오, 탄소 관련 기술

2) IPCC(2023)

3) World Economic Forum and Oliver Wyman(2021)

4) GFMA and BCG(2020)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10개 주요 산업(전력, 철강, 시멘트,

(CCUS)의 혁신 등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자금을 공급한다.

지속가능 공시는 인류가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 나가는데 필요하지만 한정된 투자재원이 적시적소에 공급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 공시는 지속가능 투자에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여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투자를 받고 싶은 기업에게 지속가능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만들어 시장규율을 통한 민간 부문의 지속가능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 기업의 유용하고 정확한 지속가능 공시는 투자자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류의 관심이 커질수록 지속가능성 투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지속가능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지속가능 공시가 더욱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나. 지속가능 투자와 공시의 확산

〈표 Ⅰ-1〉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지역	2016		2018		2020		증가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6~'18	'18~'20
유럽	12,040	52.7	14,075	45.9	12,017	34.0	2,035	-2,058
미국	8,723	38.2	11,995	39.1	17,081	48.4	3,272	5,086
일본	474	2.1	2,180	7.1	2,874	8.1	1706	694
캐나다	1,086	4.8	1,699	5.5	2,423	6.9	613	724
호주·뉴질랜드	516	2.3	734	2.4	906	2.6	218	172
합계	22,839		30,683		35,301		7,844	4,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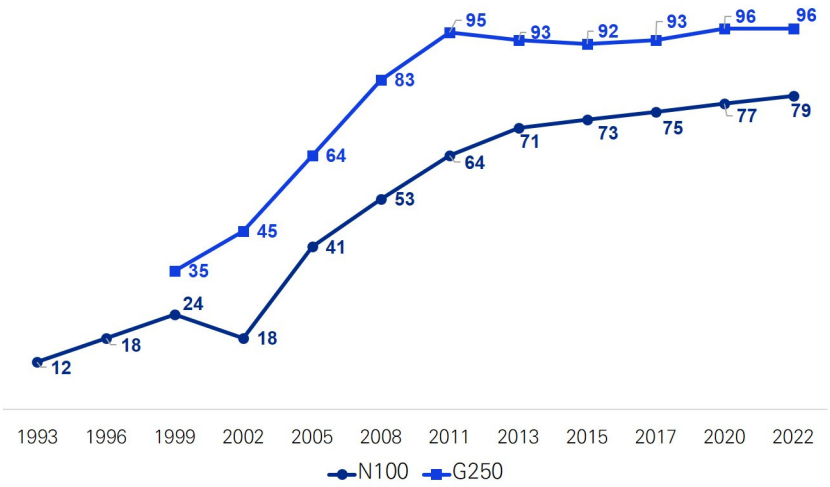
자료: GSIA(2019); GSIA(2021)

이미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며 지속가능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투자 대상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2012년 13.3조 달러 규모였던 전 세계 ESG 투자규모는 2020년에는 35.3조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표 Ⅰ-1〉 참조).

화학, 교통, 운송, 항공, 해운, 농업, 건축)을 분석하여 탄소중립에 필요한 금융시장 및 투자 규모를 추정함

〈그림 Ⅰ-2〉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 공시 확산

(단위: %)



주: N100에 해당되는 5,800개의 기업과 G250에 해당되는 250개의 기업을 바탕으로 조사한 자료임
자료: KPMG((2022)

투자유치를 위하여 기업들도 경영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통합하고 이를 공시하기 시작하면서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KPMG의 2022년 글로벌 대기업 공시현황 조사[5]에 따르면 G250[6]의 96%와 N100[7]의 79%에서 지속가능 공시를 하며 지속가능 공시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Ⅰ-2〉 참조). 지속가능 공시의 확산에는 투자자는 물론 NGO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기후 리스크와 탄소배출량(혹은 감축량)에 대한 공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TCFD 설립을 기점으로 2년 동안 N100 및 G250 절반 이상이 기후 목표를 공개하였으며 2022년 공개율은 N100에서 71%, G250에서 80%를 각각 기록했다. 영국, 일본, 독일 기업은 조사대상 기업의 최소 94% 이상이 기후 목표를 공개하였다. 대륙별로는 유럽, 미주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각각 80%, 74%, 62%,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는 기업의 54%만이 기후 목표를 공개하였다.

5) KPMG(2022)
6) 미국 Fortune지에서 2021년 선정한 매출 기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상위 250대 기업임
7) 전 세계 52개 샘플 국가의 매출 상위 100대 기업임

다. 지속가능 공시기준 논의의 진전

지속가능경영 공시와 관련된 글로벌 표준은 GRI, UN SDGs, ISO 26000과 같은 전통적 이니셔티브를 반영한 공시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엔 기업의 ESG 이슈가 부상하면서 TCFD, SASB 등이 주목받으며 사용이 증가하였다. KPMG의 2022년 글로벌 대기업 대상 공시현황[8] 조사를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속가능 공시기준은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표준이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의 기준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국가별 증권거래소 상장기준 등에 의한 지속가능 공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 투자가 늘어나고 지속가능 경영과 이에 대한 공시도 확산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 공시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동안 지속가능 공시는 투자자를 위한 통일된 공시기준이 없어 비교가능성이 낮아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다.

기업과 같은 조직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Impact)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 공시 관련 글로벌 표준이나 이니셔티브로는 GRI 표준, UN SDGs, ISO 26000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관점은 기업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외부효과이며 '기업활동 → 외부환경'으로 도식화 할 수 있다.[9] 다른 한편으로 환경과 사회와 같은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 경영에 주는 위험과 기회(Risk and Opportunity)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TCFD와 SASB 등은 근래 들어 지속가능 또는 ESG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관점은 '외부환경 → 기업의 재무적 영향'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10]

통일된 지속가능 공시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속가능 공시기준의 통합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은 지속가능 공시에서 '중요성(Materiality)'의 개념과 지속가능성 공시를 기존 재무공시와 통합하는 것이었다. 지속가능 공시기준을 수렴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5대 글로벌 지속가능 관련 기준제정 조직이 모여 2020년 9월에 공동작업 의향서[11]를 발표하였고 이들 기구들에 대한 물리적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

8) KPMG(2022)

9) Inside-Out Perspective라고도 하며, 중요성 관점에서는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이라 부름

10) Outside-In Perspective라고도 하며, 중요성 관점에서는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으로 포섭됨

11) 5대 글로벌 지속가능 관련 기준제정 조직은 CDP,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CDSB),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IIRC),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ASB)로 2020년 9월 11일, 공동작업의향서(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를 발표하고 공통된 지속가능 공시기준과 이를 재무공시에

2021년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12]의 설립이 발표되었고 지속가능성 기준 관련 조직의 통합이 진행되었다(〈그림 Ⅰ-3〉 참조). ISSB는 2022년 3월 31일, 지속가능성 관련 일반적 재무정보 관련 요건을 담은 공시기준 일반 요건(IFRS S1)과 기후공시 관련 세부요건(IFRS S2)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EU에서는 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에서 유럽지속가능보고기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ESRS)을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의 공시기준으로 발표하였다.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은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성이 기업에 주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공시하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ality)'에 기초하며 지속가능공시를 기업규제와 연결시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논의가 진전되고 ISSB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재무공시 기준의 초안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회계기준원 내에 설립하여 국제기구 논의에 대응을 시작하였다.[13] KSSB는 ISSB의 지속가능 공시기준 국제논의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 공시활동을 지원하면서 국내 지속가능 공시기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라. 감독당국의 지속가능 공시 관련 규제 도입 논의

기후위기의 확산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투자 활성화가 글로벌 주요국가의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어 이루어지던 지속가능성 의제가 국내는 물론 주요 국가에서 강제성이 있는 지속가능성 정책 및 제도로 자리잡는 추세이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인권 및 노동관행과 관련된 법률이 강화되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지속가능 공시규제를 선도하는 EU는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SFDR) 시행에 이어 2025년부터는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EU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유럽기후법(European Climate Law)[14]에 기반하여

통합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기로 하였음

12)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1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 12. 15), "ESG 공시기준 논의를 위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설립"

14)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분류체계, 공시, 공급망 실사 등 관련 규제의 도입을 진행 중이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SEC)도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을 제안하였다. 2022년 3월 미국 SEC는 기후 관련 리스크와 사업에 미치는 중요한 내용 등을 재무공시에 포함시키는 공시 규칙 개정안[15]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장기업의 지속가능 공시를 의무화하고 올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하여 지속가능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2030년까지 모든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16]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이미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의무화되었으며, 2026년부터 모든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글로벌 기준과 국내 실정을고려하여 지속가능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17]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가. 연구방법

이 연구는 크게 사례 및 문헌 조사와 이를 활용한 정성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국내외 지속가능 공시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국내외 지속가능 공시기준 제정 관련 기관의 온오프라인 정보를 조사하여 진행된다.

또한 지속가능 공시기준 제정 관련 국제적 논의와 관련된 쟁점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 공시기준 도입 논의와 관련된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국내 지속가능 공시제도 정비 시 보험산업 관련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다.

401/2009 and (EU) 2018/1999 ('European Climate Law')

15) SEC(2022)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1. 14), "기업부담은 줄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 12. 28),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경제 구축"

나. 선행연구

이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는 크게 제도적 측면에서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 관련 연구와 해외 지속가능 공시제도 사례와 관련된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 관련 선행연구

Christensen, Hans B., Luzi Hail, and Christian Leuz(2021)는 지속가능 공시 관련 회계, 재무, 경영 및 경제 분야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지속가능 공시제도를 소개하였다.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가 자본시장, 이해관계자, 실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시행과정의 이슈 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인형·이상호(2021)는 지속가능 보고 관련 국제적인 공시기준 제정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를 위한 향후 제도 정비 논의에 필요한 시사점 제안하였다. 특히 국제정합성과 기존의 재무보고 체계와 연계성 면에서 합리적 대안으로 ISSB 기준의 채택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비한 공시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최유경·정아름(2021)은 ESG 공시 관련 국내외 주요 제도 동향과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ESG 공시 강화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통합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해외 지속가능공시제도 관련 선행연구

Katz, David and Laura McKintosh(2021)는 지속가능 공시기준 관련 미국 증권법 관점에서 중요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이중 중요성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합리적 투자자에 대한 정보의 유용성이 중요성 판단의 기준임을 강조하고 미국 증권법상의 중요성은 합리적 투자자 가정을 통해 이미 동태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Sebastian Steuer and Tobias H. Tröger(2022)는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 규율의 측면에서 지속가능 공시가 기능하고 투자자본이 녹색금융으로 모이기 위한 요건을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으로 시장실패 교정

등의 효과를 위해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를 포함한 사회적 편익이 증가함을 보였다.

홍철규(2022)는 유럽, 미국 그리고 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의 배경과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회계공시의 관점에서 기존 일반목적 재무공시와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각 기준 및 규정의 중요성 원칙에 대한 접근법을 분석하고, 각기 다른 접근법이 앞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제시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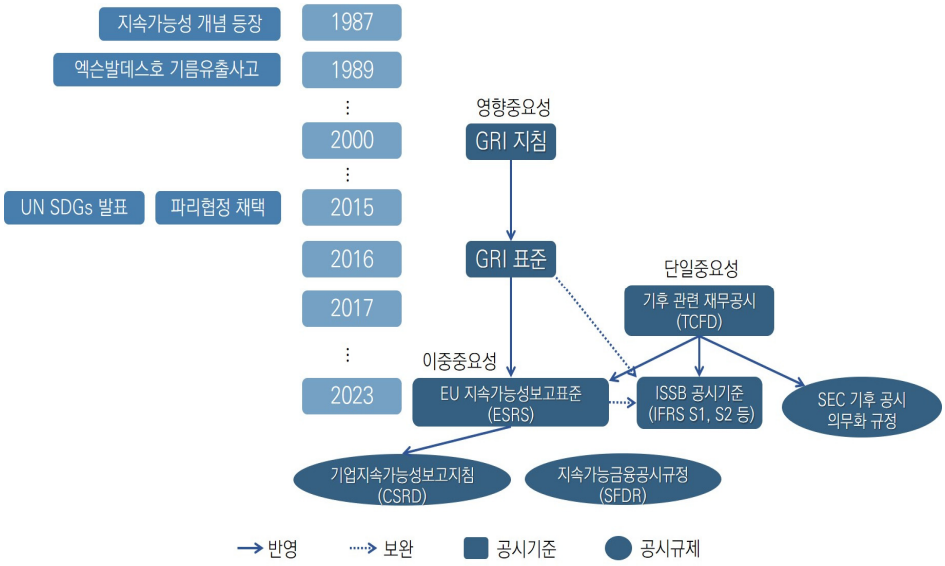
최유경·조아영(2021)은 EU의 비재무공시지침(NFRD)의 배경, 주요내용 및 EU 회원국의 지침에 따른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공시 의무화 관련 입법 수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등을 소개하고 지속가능 공시의 한계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신영·홍윤선(2021)도 EU의 비재무공시지침(NFRD)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기후 관련 정보를 재무적 본질과 환경 및 사회 문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환경정보 공시 의무화와 함께 지속가능보고의 사업보고서 통합과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보 공시 연동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김수연·이태(2022)는 미국 SEC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환경정보 공시제도 현황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SEC 제안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TCFD 기반 기후대응 체계와 목표를 점검하고 자회사 및 협력사의 기후 리스크까지 고려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 공시기준 제정과 관련된 논의 내용 및 쟁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속가능 공시제도 정비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공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공시제도와 기준 관련 국제 동향을 정리하고 논의과정의 쟁점을 분석하여 공시 의무화 등 제도 정비에 필요한 보험산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

3. 보고서의 구성

〈그림 Ⅰ-3〉 지속가능 공시의 흐름



이 보고서의 구성은 〈그림 Ⅰ-3〉의 흐름을 따라 이루어진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지속가능 공시의 기준을 소개한다. 먼저 지속가능성 개념의 등장과 엑슨 발데즈 오일 유출과 같은 환경사고를 거치며 대두된 기업의 환경책임과 지속가능성 보고의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지고 오랜 기간 주요 지속가능 공시의 표준이었던 GRI 표준을 소개한 뒤, 파리협정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경제 전환과정에서 부상한 재무적 중요성을 부각시킨 TCFD 권고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영향 중요성과 재무적 중요성 관점에서 두 기준의 주요 차이점과 함께 두 공시기준에 대한 통합 논의를 설명한다.

이어 두 기준의 통합논의에서 탄생한 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ISSB)와 여기서 발표한 국제지속가능 재무공시 초안의 주요내용과 함께 중요성 기준, 보고형태 및 위치, Scope 3 배출량 공시 등 논의과정의 주요 쟁점사항을 살펴본다. 그리고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온실가스 Scope 3 배출량에 대한 보험산업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최근 논의를 소개한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소개한 지속가능성 국제기준과 논의과정의 주요 쟁점사항들이 EU

와 미국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규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 알아본다. 먼저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과 이에 따른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함께 지속가능금융공시(SFDR)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후, 미국 SEC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의 내용을 소개한다.

Ⅳ장은 2025년부터 지속가능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지속가능 공시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공시 현황과 함께 향후 공시제도 정비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내용과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마무리 짓는다.